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도 한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각색일수 있다. 실업문제, 고용불안문제, 직장 내 스트레스문제, 인사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취업 중인 경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박봉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직장상사로부터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어려운 삶을 견뎌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난관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병리적 현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화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가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이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이 아닐까. 아무리 힘든 불행 속에도 함몰되었다고 하더라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간단없는 자기 자신의 전향적인 노력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문인으로 추앙받는 루쉰은 이런 말을 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다. 땅 위에 길을 놓는 것은 사람이다. 그 길을 각자가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노력 또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히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한 꿈은

짧은가.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한 불행도 막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결국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권력, 물질 등 외부적 조건의 많고 적음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아를 어떤 방향으로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말이다. 만약 외부조건만이 행복을 결정짓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최적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은가. 그런 조건들과 삶의 질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는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불행 속을 걷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다. 물론 외부조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내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획득해가는 것만큼 이상의 갈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욕구를 다스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외적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만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구질구질한 것들은 털어버리자. 변화를 꾀해보자. 구조조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

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음력 6월 1일)



48년생 조용하던 집안에 활기가 넘쳐난다. 60년생 천금같은 기회욕심을 채워보자. 72년생 피할 수 없는 난관 앞서 싸워 보자. 84년생 고맙다 미안하다 인사하고 고맙다. 96년생 행복이 별천지 출가유면 그만이다.



49년생 수염이 석 자라도 무중을 들어보자. 61년생 도토리 개떡기 처음을 지켜보자. 73년생 말이 많아지면 초래해 보여진다. 85년생 수고로운 노동이 값으로 매겨진다. 97년생 대단한 사명감 금강이 달라진다.



50년생 요긴한 도움 우렁차니까 대견하다. 62년생 손술이 달아지는 축하를 받아보자. 74년생 슬픈 이야기는 자랑으로 변해진다. 86년생 유일한 해결책 빛을 남겨야 한다. 98년생 다정한 눈 맞춤 청춘 꽃이 피어진다.



51년생 신명나는 재미 동심으로 돌아가자. 63년생 애교 섞인 부탁이나 주고 감싸 주자. 75년생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 온다. 87년생 아프지 않은 상처 바람에 실어 내자. 99년생 청춘에 힘입어 다시 한번 도전하자.



52년생 달콤한 호사 신선이 부럽지 않다. 64년생 맛있는 감동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76년생 부러운 건가. 입술을 물어보자. 88년생 출세와 명예 신봉 상송할 수 있다. 00년생 달님이 질투하는 만물을 가져보자.



53년생 역전의 용사들 동자매로 뭉쳐보자. 65년생 넉넉한 인심 큰 부자가 되어보자. 77년생 혼자라는 외로움 극복해야 한다. 89년생 자나한 저자세 우습게 보여진다. 01년생 공격이 아닌 수비 뒷걸음쳐야 한다.



54년생 약속을 피하는 강경이가 되어보자. 66년생 넉넉히 싸를 뿌려 풍년을 기대하자. 78년생 차수는 유명세 정성을 향해 가자. 90년생 실어도 좋은 척거면을 싸야 한다. 02년생 고운 빛깔 유혹이 가슴을 두드린다.



55년생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올 수 있다. 67년생 아무 겁을 없이 평안에 빠져보자. 79년생 원망과 체면보다 노력이 필요하다. 91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과 화해하자. 03년생 고생하며 애썼던 결과가 남겨진다.



56년생 백마디 위로보다 지갑을 열어보자. 68년생 기쁜 상속에 날개가 달려진다. 80년생 이루어지 못한 꿈을 다시 깨내보자. 92년생 열심했던 단 공부상을 받아낸다. 04년생 폭풍 같은 시련 성장임을 알아보자.



57년생 예전만 못한 솜씨 각오로 다시 하자. 69년생 거들어준다, 간섭 혹은 달려진다. 81년생 반대도 만류도 모른 척해야 한다. 93년생 순풍에 돛달고 앞만 보고 달려보자. 05년생 끈질긴 애정 공세 진심만 보여주자.



58년생 몸이 고생해야 원하는 길 얻는다. 70년생 가림비 웃이 젖듯 조금씩 알아가자. 82년생 뿌듯한 성취감 구름까지 달아진다. 94년생 선배는 예측 낙제점을 받아낸다. 06년생 운명으로 정해진 만남을 가져보자.



59년생 간절한 소망이 가격을 불러낸다. 69년생 원지 불완전, 시간으로 지워내자. 81년생 천 리 길은 멀었던 목표가 보여진다. 93년생 언제 오나 기다린 소식을 들어보자. 05년생 억누르던 불만 밖으로 꺼내보자.

기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고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에는 공식 로고나 인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카드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 카드사 ARS 멘트, 팝업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배송 시스템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카드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영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승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50 경부고속도로 50주년